

## Contents



#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중국 콜드체인 시장, 2025년까지 연평균 10.9% 성장



#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아마존, 창고 자동화 로봇기업 Canvas Technology 인수
2. Kuehne+Nagel, 디지털 화물 플랫폼 출시
3. 일본, '국토교통성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행동계획 2019' 발표

### 명사 스피치

*"일하는 방법과 사고를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... 현장 재량권의 확대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."*

배재훈 현대상선 사장  
(2019. 4. 10. / 임직원 간담회에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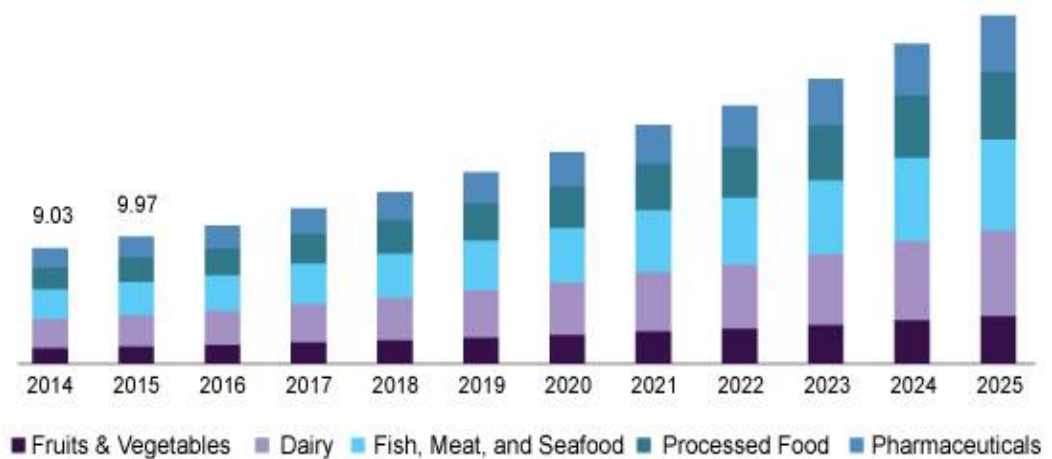


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## 중국 콜드체인 시장, 2025년까지 연평균 10.9% 성장

2014~2025 중국 콜드체인 시장 규모

(단위: 10억달러)

자료 : <https://www.grandviewresearch.com/>

- 중국은 중산층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콜드체인 시장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 콜드체인 시장은 2015년 기준 99억 7,000만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0.9% 성장해 2025년에는 277억 9,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 정부는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콜드체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, 저온 저장 및 운송 솔루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인지도 상승 결과라 볼 수 있음

참고자료 : [www.grandviewresearch.com](http://www.grandviewresearch.com)

신수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## 아마존, 창고 자동화 로봇기업 Canvas Technology 인수

- Canvas Technology는 2015년 Google, Toyota, Qualcomm, General Atomics, Kiva Systems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이 설립한 자동화 로봇 전문기업임
  - Canvas Technology는 6년 동안 Qualcomm에서 근무한 Jonathan McQueen이 운영하고 있으며, Playground Global의 Series A로부터 1,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함
  - Canvas Technology에서 개발한 Autonomous Cart는 2018년 봄 Playground의 오픈하우스에서 전시되었으며, 사람과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 이를 피하며 이동하는 인상 깊은 작업을 선보임
- 이번 인수를 통해 Amazon은 자사의 풀필먼트 센터에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영감을 얻었다고 함
  - Amazon 대변인에 따르면 사람이 로봇과 함께 작업하는 Canvas Technology의 혁신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며, 이러한 미래 비전 공유와 함께 고객을 위한 발명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함
  - Amazon Robots는 Amazon이 2012년 Kiva Systems를 인수하면서 신설된 부서로 현재 Amazon의 많은 풀필먼트 센터에 자동화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중심 부서이며, Canvas Technology는 이 부서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예정임



사진 : [https://www.supplychain247.com/article/amazon\\_acquires\\_autonomous\\_warehouse\\_robotics\\_company\\_canvas\\_technology](https://www.supplychain247.com/article/amazon_acquires_autonomous_warehouse_robotics_company_canvas_technology)

■ 참고자료 : Supply Chain 247, Amazon Acquires Autonomous Warehouse Robotics Company Canvas Technology, 2019.4.11.

강무홍 전문연구원

051-797-4684, mkang@kmi.re.kr

## Kuehne+Nagel, 디지털 화물 플랫폼 출시

- 글로벌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인 퀴네앤드나겔(Kuehne+Nagel)은 리드타임\*이 보장되는 최초의 디지털 화물 솔루션인 'KN Pledge'를 발표함
  - \* 상품의 생산부터 최종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함
  - 퀴네앤드나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디지털 화물 솔루션인 'KN Pledge'를 출시한다고 발표함
  - 기간 운송 부문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터미널, 철도 및 도로의 정체, 악천후 또는 공급망 장애 등으로 인해 물류 운송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음
  - 그러나 'KN Pledge'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모든 배송과정을 조합함으로써 전체 컨테이너 운송의 리드 타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힘
- 퀴네앤드나겔은 해당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인 'Sea Explorer'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, 빅데이터, 실시간 선박 정보 등을 사용함
  - 'KN Pledge'를 이용하는 고객은 배송 지연 시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, 컨테이너에 대한 다양한 손해배상 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음
  - 또한 퀴네앤드나겔은 아시아,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에서 '자연 기반 프로젝트(nature-based projects)'에 참여하고 있어 이용고객 역시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 영향을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
- 퀴네앤드나겔의 경영위원회 위원인 오토 샤흐트(Otto Schacht)씨는 "퀴네앤드나겔의 온라인 서비스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객중심적 서비스를 추구할 것"이라고 밝힘



자료 : <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>

■ 참고자료 : Port Technology, 「K Line to Develop Drone Inspection Tool」, 2019.3.4.

김영훈 연구원

051-797-4668, kyh@kmi.re.kr



## 일본, '국토교통성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행동계획 2019' 발표

- 지난 4월 5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토교통 분야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를 목적으로 관계자와 정보·전략을 공유하고, 민·관 협력체계 축진을 위한 '국토교통성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행동계획 2019'를 발표함

- 동 계획은 4개의 기본 방침을 책정함

### '국토교통성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행동계획2019' 기본 방침

- ① 'Upstream'에서 'Downstream'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부 기능 강화
- ② 자국 기업의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
- ③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
- ④ 프로젝트 확정 후 지속적 관리 방안 마련

자료 : 일본 국토교통성

- 2019년에는 향후 3~4년 내 수주할 프로젝트 83건을 선정함
  - 작년도 계획에서 83건의 프로젝트 중 18건 삭제(10건은 일본기업 수주, 1건은 해외기업이 수주, 7건은 입찰시기 지연 등)하고, 65건은 승계, 신규 18건을 추가함
  -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55건(동남아시아 46건, 남아시아 9건)으로 가장 많고, 아프리카, 유럽 등의 중요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음

### '국토교통성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행동계획2019' 지역·국가별 추진 계획도



자료 : 일본 국토교통성

- 철도, 항만, 공항, 도시개발, 방재, 도로, 건설사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동향, 자국의 강점·약점, 향후 추진 방향성을 제시함



- 항만 분야에서는 민-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'해외항만물류 프로젝트 위원회' 활용 확대, 베트남 항만 기술기준의 제도 구축 지원, 캄보디아 항만 EDI 전개, 국제항로협회(PIANC,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es) 등 국제조직과의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
- 공항 분야에서는 일본 공항 운영사(나리타 공항 주식회사 등)에 의한 미얀마 한따와디(Hantharwaddy) 국제공항 조사 및 출자·기술협력 실시, 몽골 울란바토르(Ulaanbaatar) 국제공항 운영사업 참가 등을 실시함
- 철도 분야에서는 안전성, 신뢰성, 낮은 라이프 사이클 비용 등의 일본 철도 강점을 홍보하고, 우위성을 보유한 도시교통시스템(AGT·모노레일)의 해외 전개를 확대할 예정임
- 도로 분야에서는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 등의 해외 도로 건설에 대한 PPP(Public Private Partnerships) 안건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

■ 참고자료 : [www.mlit.go.jp](http://www.mlit.go.jp), 2019.4.17.

최나영환 전문연구원

051-797-4770, [chnayoung@kmi.re.kr](mailto:chnayoung@kmi.re.kr)